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집중호우 피해,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

□ 소방방재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중호우,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권유함.

○ 이번 집중호우 기간(7.7~7.9) 중 폭우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의 피해가 총 18건 발생하였으며, 지급보험금도 3,240만원*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.

* 주택피해(16가구, 3,100만원) 및 온실피해(2건, 140만원)가 발생

□ 나주, 화순, 함평 등 전남 지역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367가구, 총 84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,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일부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소파(小破) 피해까지 보상받게 되어 보험가입자의 주택복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.

○ 전남 함평군의 한 보험가입자는 주택의 소파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, 가입한 주택보험 상품(보험가입면적 주택이 50m², 보험가입금액은 2,970만원)으로 보험금 약 773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.

○ 이는 지난해 9월 전남 함평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주택을 대상으로 연간 총 보험료 52,800원 가운데 49,500원(본인부담 3,300원)을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임.

□ 이에 정부는 풍수해 피해 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1%~68%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.

○ 아울러 기초수급생활자 주택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를 일반가입자보다 상향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 중임.

(집중호우 피해주민-풍수해보험금으로 크게 도움,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, 7/10)